



시민의 힘으로 더 큰 도약을! 자치도시 강진

주민세 연계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당진시 소개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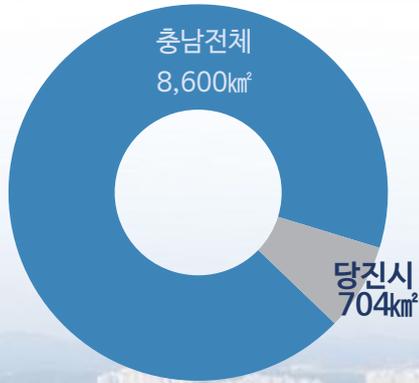
- 대한민국 중서부, 충남의 최북단에 위치, 과거 삼교천 유역 평야 중심 쌀 농업지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

↑↑ 서해대교 개통 후 근로자 등 인구 증가로 2012년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



면적 704km²

서울시와 싱가포르보다 큰 면적



인구 173,544명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인구수	675,846	330,242	178,621	173,544

충남 4위

최근 3년간

3,285명

증가



산업경제

현대제철 등 1,100개 기업
근로자수 33,320명



농업경제

논 면적 19,140ha (전국1위)
쌀 생산 105,748톤 (전국1위)





지역의 발전

지역의 고민


**합계출산률 市 단위
1위**


**고용율 市 단위
2위**


**주민육구 다원화
관주도 행정 한계**


**급속한 산업도시화
공동체 갈등 심화**



첫째. 참여 저변 넓히기
둘째. 주민 역할 변하기




옛그제 이사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 041-360-8006 **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렸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 041-360-8006 **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은퇴한 내가 도움이 될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의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 041-360-8006 **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살림만 하던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분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문의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 041-360-8006 **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항상 하던 사람만 하는 거?
 주민자치위원회는 **늘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 041-360-8006 **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한과 팔아 매출 7억... 할머니들의 '반란'

강성휘기자 | 입력 2017-01-24 03:00:00 | 수정 2017-01-24 03:00:00

댓글보기 0 | 폰트 + - | 뉴스듣기 여성 남성 |

충남 백석올미마을 매실한과 대박



김금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대표(가운데)와 승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지난 해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관광객을 포함한 8000명이 농촌체험활동을 위해 백석올미마을

순성면 백석올미마을

지역주민 참여 영농조합 평균연령 75세

귀농인 김금순씨

신평면 청소년 100인 토론회

중·고등학생 각 50명 참여

도비 공모 3억원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로 황금알 낳았다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3억원 확보



▲ 당진시 신평면의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제안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주민세를 주민의 손으로!

정책모델

-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역 주민이 직접 공론화(결정)하여 집행
- 장래적 주민세 ↔ 지역주민 부담 자치회비로 보아 목적세화 추진



개인균등분 주민세 (지방세-시군세-보통세) *주민세 = 지역주민 부담 회비
- 매년 8월 1일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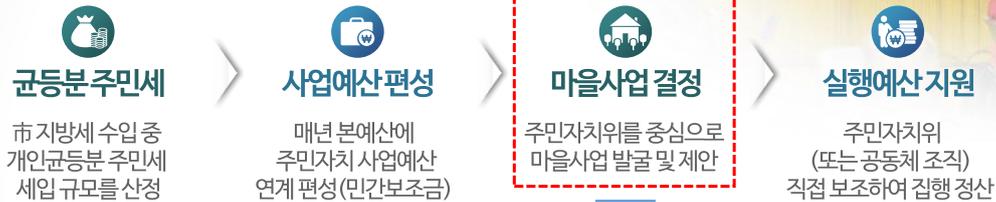
자치사업 예산

- 자치사업 예산
- 균등분 주민세



주민총회로 마을사업 결정

마을사업 흐름



마을사업 결정 과정



주말이 생각하고, 주말이 맛들고, 주말이 사랑하는

고대면 마을계획동아리 모집

모집기간 2019. 3. 18(월) ~ 4. 5(금) 모집대상 고대면민 누구나 접수/문의 고대면행정복지센터/041.360.8152

당진3동 마을계획동아리 모집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마을사업

- 모집기간 2019. 3. 11(월) ~ 3. 29(금)
- 모집대상 당진3동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주민 모두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를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제출
- 활동내용
 - 동아리구상 2019.3
 - 마을계획발표 2019.4~5
 - 주민총회 2019.6
 - 마을계획수행 2019.9 ~2020.3
 - 사업평가 2020.4

문의 ☎ 041.360.8685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마을계획이란?

주민 개개인이 느끼는 우리 동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찾고 채워나가기에 마을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의견 하나가 우리 마을을 바꿉니다.

실기출은 우리 동네 직접 만들어 보세요. 변화의 시작, 참여가 정답입니다!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네를 오래 지켜 행복을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 ☑ 제 이웃에만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걸까?
- ☑ 동네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 ☑ 잊었던 동네날 추억이든 신선식품도 바꿀 순 없을까?
- ☑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축제가 있었으면.
- ☑ 우리 동네엔 세 큰 도서관이 있을까?
- ☑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학교가 필요해!
- ☑ 어르신들이 모여 달게 하는 일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주민이 직접 우리 송산면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2019년 3월! 송산면 마을계획이 시작됩니다.

송산면 마을계획동아리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참여신청은 **2019. 3. 29(금)까지**
접수처 송산면행정복지센터(총무팀)로 신청서 제출
문의 ☎ 041-360-8562

당진시청 2019년 3월 29일

그해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마음을 전해요

#주민자치마을계획사업 #마을계획동아리 #주민자치위원회
- 신청기간 : 3.1 ~ 3.30까지... 더 보기

주인이 직접 우리 읍면들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2019년 3월 읍면별 마을계획이 시작됩니다.

당진시청 @dangjin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사업 발굴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 실행

2019년 주민총회 사업 (총 65건)

주민자치 사업 (40건)

- 주민자치위원+마을계획단
- 읍면동별 실행사업비지원 (시비/민간경상보조금)

부서 행정건의 (8건)

- 가로등 설치·과속방지턱 등 관(官) 추진 성격 사업
- 위원회 → 소관부서 건의

참여예산 공모 (12건)

- 道市참여예산공모신청
- 추가사업예산필요 및 장기 사업대상

사업의 성격·예산 규모 등 고려한 사업 추진 방식 다각화

→ 주민이 계획, 결정한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충청매일

2019년 10월 02일 (수)
10면 지역



청소년들 주민자치 참여 결실 맺다

당진 여성청소년자치센터 개관

당진시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자치와 소통 공간인 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지난날 30일 개관식(사천)을 갖고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최초이자 유일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이곳은 506천여만원을 투입해 당진시 신령면 신령길 138 소재 옛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좌식 60석 규모의 소형 공연장, 대회의실, 모임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 북카페의 경우 당진시립도서관의 '봄봄이 도서관'을 유치해 2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신청권 지역 동아리 및 지역주민들의 모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여성청소년자치센터는 개관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 이유는 이곳이 2017년 7월 신령면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 100인 토론회 당시 청소년들이 제안해 실제 사업화로 성공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100인 토론회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충청남도 도민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도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았으며, 이후 지역 청소년과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센터 건립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박우하 신령면장은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여성청소년자치센터가

폐건물 (옛 119 안전센터)를 청소년 심터로 조성



충청신문

2019년 10월 14일 (월)
19면 지역

당진 원당공원, 민·관 협력으로 탈바꿈

지난해 충남도민참여예산 공모서 9천만원 도비 확보



당진시 원당공원 개선 사업 전 후 사진

사진제공/당진시청

낮은 의자와 부족한 운동시설,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는 커녕 밤이 되면 청소년 비행과 범죄 발생이 우려되던 당진시 원당공원이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해 화제다.

당진시 전체 인구 17만 명의 약 11%가 거주하고 있는 당진3동에 위치한 원당공원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외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했다.

이에 당진3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마을계획 동아리를 구성해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를 주제로 원당공원 개선 사업을 구상하고 2018년 당진3동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민투표를 거쳐 1순위 사업으로 확정했다.

역 원기림이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했고, 실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진행된 2018년 충남도민참여예산에 공모해 전체 2위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9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실제 사업은 공원조성 경험이 풍부한 당진시청 공원관리팀이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과 관이 합심해 지역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실시할 때만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사업을 발의하고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생소했음에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원당공원을 세

어둡고 낡았던 공원을 청소년 쉼터로 새 단장

성과평가 및 확산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139건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 사업

 67건

대외 평가

8관왕 래거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 선정

주민총회 개최

"14개읍면동 2,626명" 참여
65개 사업 발굴

전국 벤치마킹

총 95회 2,442명

주민들의 참여 문화가 시정의 쏠 분야로 확산

중도일보

2019년 08월 22일 (수)
17면 34쪽

당진 청년민회, 1천명 청년의 손으로

10월 19일 개회-참여가 모자라서
가상과제로 사업 크라우드 펀딩
우선사업-사업량 직접 결정 가능
효과 높은 제갈형 정책이민터 기대

▶시는 **일자리**를 관두지 않겠다'고 밝히는 청년들의 개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2일부터 청년민회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하면서 청년민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19일 전국 최초로 청년 1000명이 참여해 개회하는 청년민회는 실무적인 제갈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가

수행 계획에 예산 반영 과정에 지역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청년들이 의견을 바로 경제으로 추진하는 길고 혁신적인 참여를 열었다.

청년민회 참여자가 100명은 22일부터 모집을 통해 성별과 연령, 활동분야 등을 고려해 청년 대표층으로 선정되며 행사와 계획과 실행은 20명으로 구성된 청년민회와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며 청년민회 주요 행사로는 청년중대사업(총액 100억 원) 공모전, 청년 **일자리** 비전포럼 등이 있다.

이중 청년중대사업은 청년들이 실제와 경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 시가 추진할 청년정책사

업을 청년이 제안하고 실행조치를 통해 청년민회에 상정되면 민회에 참여한 청년 100명이 개회별로 지원금은 가상화폐 200만 원의 활용에 해당하는 시액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시와 내선 청년(파)업 예산 20%의 청년민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00인 청년민회는 시정 중대 사업 등에 대해 의견 달인과 견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전통적인 안목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민회도 제갈형도를 통해 선정되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비전포럼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을 주제로 각 특성과 청년민회 상로, 어디 어디로 상생, 무지관선비 등으로 다뤄 함께 꾸민다. 무지관선비(눈에 보이지 않는)는 청년, 노년, 노년, 세대를 정의의 연가 수가 출현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 정책에 담아서가 위해서는 청년들이 참여가 중요하다'며 '100인 청년민회'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청년민회에 유망지역 청년민회 5곳을 선정과 참여 제안'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민회 참여를 모집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www.dangji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과 단체의 벽을 넘어 소통과 상생 방안 모색

대전투데이

2019년 07월 02일 (수)
10면 34쪽

당진형 주민자치 지역·단체 간 상생 모색

당진시, 지역주민 소통 협력사업 추진



▶대전투데이 대전=당진시 주민자치 지역과 단체의 벽을 넘어 소통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당진형 주민자치 지역·단체 간 상생 모색 모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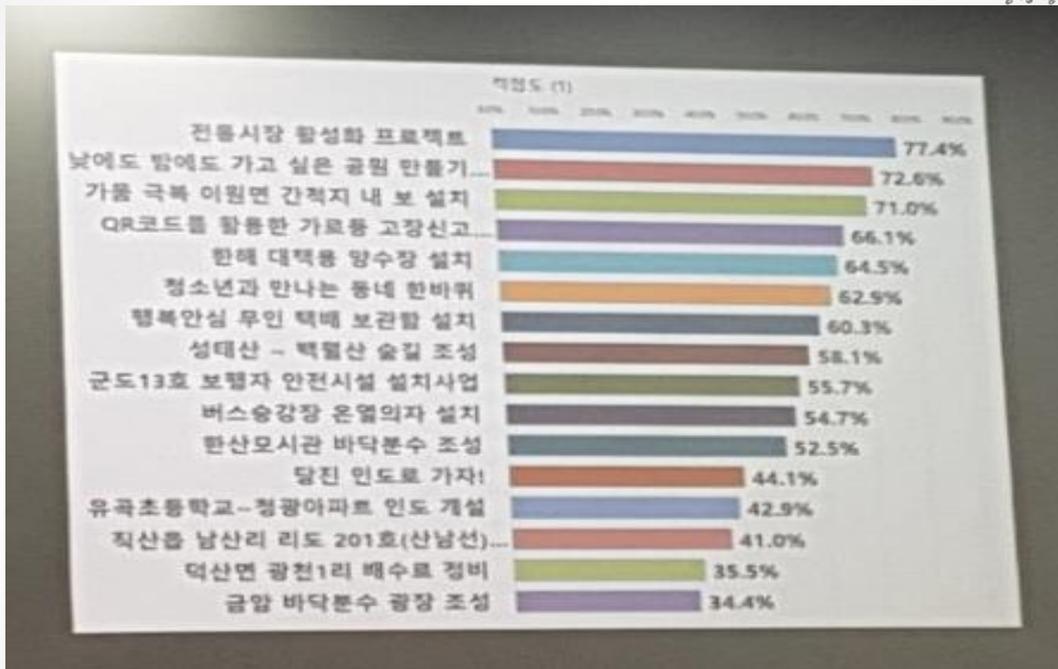
당진시, 지역주민 소통 협력사업 추진

당진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주민 소통 협력 사업은 행정 구역 상 서로 다른 읍·면·동이 이웃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있거나 협력 가능하다. 행정원은 다른 지역 상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단체가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간에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이나 지역단체 간 회의, 공동 활동 등에 대한 협력사업 등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과 단체가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는 지역상생 사업이나 주민총회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상생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추진한다는 취지에는 큰 의미가 있다. 지역 상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당진시, 지역주민 소통 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 지역과 단체 간 소통을 위한 2019년 시 승계 이후 3개의 당진형 주민자치 지역 1, 2, 3 등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을 도모 중이다.





'18년 도민공모사업 49억 → 당진시 5개 사업 12억6천만원



앞으로의 계획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액을 주민자치사업 고정재원화
현재 61.5% 규모를 2021년까지 100% 비율로 확대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고유기능화 추진



읍면동 주민자치 → 리통(里統) 마을자치 활성화 확대
마을회를 합리적 자치 조직으로 기능 재정립 (마을의제 강화)



온라인 마을계획 참여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참여 유도
2018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으로 구축 중

시민의힘으로 더 큰 도약을!
살맛나는 **강진**
감사합니다